

14기 대경여대협 평가회의

0. 2003년 대경여대협을 평가하기에 앞서

- 14기 대경여대협의 총노선이 없어서 14기 평가의 어려움
- 자민통 운동과 여성운동의 결부(자여론의 수립과정)

1. 2003년 총평

2. 2003년 정세와 대경여대협의 과제

1) 정세

전체정세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

새 시대, 새 학생운동

#주체정세

>> 여성들의 반미반전평화수호 투쟁

>> 호주제 투쟁

>> 지역의 여성노동자 투쟁

>> 학교별 반성폭력 투쟁

3. 대중투쟁 평가

1) 반미반전평화수호 투쟁

대경여대협

여학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벌여내자라는 고민을 제출했다.

통일투쟁을 어떻게 벌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다. 자민통운동을 하는 단위이지만 우리의 것으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여학생회의 성과가 남지 않았다/ 학교에서 좀더 많은 여학생들과 함께 통일투쟁을 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여학단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을 제출하지 못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학생운동일꾼들이 헌신복무했지만 여학생회는 구체적인사업을 제출하지 못하고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동국대 은정이...

경북대 여학단위가 없고 총학생회 단위이다보니.. 몸짓패가 함께 한 성과

영남대 여학단위에서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가지 않았다. 일정을 수행한 정도의 고민...

여성통일캠페인에 대해서도 사업적으로 대했다

8월 대구경북 여성통일 캠페인 - 북미불가침조약체결 서명운동

일꾼중심으로 투쟁하고 일꾼중심으로 사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여학우들을 주인주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학우들의 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향... 여학생 운동 일꾼들이 사상관점의 문제(총평)

반미반전평화수호 여성선언

2) 반가부장제 투쟁

>> 반성폭력 운동

의식적으로 일상적으로 풀어내려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 핵심지점을 못짚어내었다

전문성을 가지지 못했다

상회에 대한 성과..

경북대...

영남대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주체를 세워서 풀어내었던 과정과 반가부장제 투쟁으로서 생활문화 운동을 진행하는 모범이 있다. 학칙사업 역시 주체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과정 학우들의 의식지형을 높여가는 성과는 있었지만 학우들을 모아가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총여학생회 자체적으로만 운동이 만들어지지 않았던가라는 고민과 부족함이 있었다.

대경여대협 차원의 반성폭력 운동

영대와 경대를 중심으로 진행한 것은 성과

반성폭력 테이블을 진행했지만 대학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일꾼들이 전문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대하는데 있어서 고민이 높아진 것 같다.

>> 호주제 폐지

대경여대협 차원에서 풀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 여성민중생존권 투쟁 및 연대사업

- 여성농민

- 여성노동자

- 여성단체와의 연대사업

영남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않고 해나간 성과

영주 여성농민을 조직하고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 성과... 어떻게 성과를 잘 남길 것인가에 대한

여성민중을 대함에 있어서 사업적으로 대했다. 여성민중생존권 투쟁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청년학생으로 여성민중생존권 투쟁을

대경여대협 캠페인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던 성과를 가져왔다 투쟁이 일관된 흐름과 계획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정도... 었던 것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가지지 못했다. 조직적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연대의 틀은 닦았다 그 이상은 아니었다

4. 대중의식화 사업

다양한 방도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

일정한 흐름과 계획을 가져오지 못하고...사안별로 진행

일꾼학교를 진행한 성과... 뒷심이 부족한 듯

대중의식화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조직화가 가능하다 기본이다 하지만,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다. 계획과 흐름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올해 대경여대협에서 주력해야 할 부분이다!!

여대협 차원에서 내용과 방도를 제출하자!!

5. 조직사상사업

1) 과여학생부·소모임

여학생회의 기층을 발굴해야 한다!! 여학생회의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여학생부가 사활!!
경산대는 소모임으로 일꾼을 단련해내는 사업... 꾸준히 내용을 내어오지 못했다 단지 봉사동아리
동국대는 소모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

영남대는 소모임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함

서로의 고민과 입장이 다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함... 주체가 제 역할을 못했음...
핵심 일꾼 단련 사업이 잘 안됨... 실천적으로 못했다...

경북대

컴공과 여학생회

과 여부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지 못함...

핵심일꾼의 성과...

영남대는 여학생 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여성운동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가지고 충여를 세우고 있다

2) 핵심일꾼 단련, 발굴

3) 자주적 여학생운동 이론 정립

4) 9기 전여대협 건설·강화

영남대와 대경여대협은 9기 전여대협 체계 건설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전여대협의 강화에 있어서... 대경여대협 활동의 담보가 되면서

14기 대경여대협 건설 강화에 있어서

15기 대경여대협 건설과 지도력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

자기 단위 사업과 투쟁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었다.

전여대협과 대경여대협을 나의 조직으로 받아안아야 한다!!

6. 15기 대경여대협의 총노선을 세우는 데서의 과제

1) 2004년 정세에서 청년여학생의 위치에서 해야할 몫은 무엇인지에 대해

2) 새 시대, 새 여학생운동을 어떻게 펼쳐낼 것인지에 대해

3) 전여대협·대경여대협 운동을 강화할 것에 대해

2003년 정세와 대경여대협에 요구되어졌던 과제

시기별로 요구되어지는 투쟁에 대해서 쫓기듯이 진행하였다는 한계

핵심정세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을 얼마나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여내었던가

작년 한해 새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여론의 정립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학생운동이 어디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남사회의 운동에
복무할 것인가

자민통을 중심으로 이남여성운동을 만들어갈 것인가...

반가부장제 투쟁이 중심인가...

중간에 나의 고민을 넣자!!

여성정세의 핵심을 꿰뚫지 못해서 그런거 같다.

호주계 폐지도 정세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여학생회가 왜 있는가?

여대생의 문제...